

떨어지는 계절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망연자실 한국사회가 깊은 암울함 속으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북녘에서 울린 핵의 진앙이 한반도를 다시 한 번 전율케 하고 있다. 여기에 이어진 크고 작은 북한의 로켓 화력 시위와 선전포고를 방불케 하는 업포성 언어 도발, 서해에 일촉즉발 감돌고 있는 긴장감, 북한의 '악행'을 둘러싼 외교적 비난, 응징에서 핵무장론까지 무성한 핵 언설들이 들끓고 있다. '핵'이라는 아슬아슬한 물건을 놓고 벌여지는 아찔한 '육망'들의 과속 질주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현기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핵은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는 주술적인 힘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 국제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핵이 '강성대국의 여명'을 알리는 알레고리로 확고해졌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핵실험은 일종의 정치적 제의(祭儀)와도 같다. 북한이 안고 있는 내외부적인 공포를 핵으로 응축하여 사회질서를 재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자신이 지닌 호전성을 극대화하여 약점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제의는 선과 악을 가르고 내부의 순수과 외부의 적을 대비시킴으로써 권력이 의도하는 질서에 대한 강한 집착을 함축한다. 핵이 물리적 힘 이상의 강렬한 정치적 상징과 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핵은 남과 북이 서로를 살해할 수 있는 '거대



불자 세상보기

홍민
동국대 북한학과 연구교수

북한의 과장된 자존심 버려야

한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 사실 상대를 적대적으로 타자화하면서 자기강화의 자양분을 얻는 분단체제의 속성상 '핵'은 그런 적대적 타자화를 보다 강화하고 풀이할 수 없는 지점으로 몰아가 수 있다. 또한 그것은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인권 유린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 핵을 필두로 동북아시아 전반에 파급될 핵이라는 존재의 대연쇄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핵'이라는 죽음의 우산 속에 삶을

영위한다는 비극적 존재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런 응동성과 지혜를 구사하는 데서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 '핵'의 자위력에 필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체제의 불안한 심리 상태의 상당 부분은 과장된 '자존심'의 표현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상대가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외교적 전술이다. 직진성이 강한 외교 어법보다 응동성과 대화 명분을 담은 은유의 수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체제를 이해하는 분석적 차원, 지난 10년간 축적된 화해와 협력의 경험적 차원, 그들의 심리적 상태를 해석해 내는 해석적 차원에서 실기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자신의 상황을 잡고 높이로부터 스스로를 끌어 낼 가능성은 많지 않다. 대결에 필요한 연정들을 만지작거리며 냉전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낡은 냉전의 대결적 품목들을 다시금 꺼내들기보다는 현 정부의 대북 인식과 접근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재정찰과 전환이 필요하다. 불안스런 타자(북한)의 거취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신뢰할 수 없는 타자로 자리매김할수록 우리 내부의 공포도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멸조의 비난이나 규탄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공감적 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북한의 발언을 기만적인 요설들로 치부할 것만은 아니다. 말미의 어지러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과속하는 차를 속도 조절해야 한다. 현기증 나는 과속은 유지한 채 임시방편의 떨미약 처방으로 가라앉힐 일이 아니다. 또한 이런 위기를 정략적으로 소비하려는 방식도 옳지 않다. 그래서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대북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이온 www.yosiamun.com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6월의 테마-보는

오전 10시 병원 법당에 도착해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뒤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스님께 부탁드릴 내용을 기록하는' 작은 공책이다. 간밤에 다급하게 기도 올린 분들이나 외래로 병원을 찾게 된 법우님들의 사연이 매일매일 적혀 있다. 많은 사연을 중 눈에 속 들어온 내용이 있었다.

"스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000 아빠, 000 엄마의 네 살 된 딸인 김00 어린 아이가 간세포종양으로 오늘 간이식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수술이 무사하게 끝나고 앞으로 많이 완치되어 00가 건강한 삶을 되찾게 되길 부처님 전에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간을 기증한 이름 모를 아이와 어머니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0아빠 올림"

네 살짜리 딸아이의 간이식수술을 앞둔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병원 법당의 지도법사로 있게 된 지 올해로 18년째이다. 짧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이렇게 어린 환우들

일체중생 은혜 알기에 갚고자 할 뿐...

의 병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 깊숙이 부터 먹먹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중생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약사여래의 서원을 따라 오늘 간이식수술을 받게 된 00이와 다른 환우들의 완쾌를 위해 사시 기도를 시작해 본다.

하루 유동인구가 3만 여명에 달하는 서울아산병원은 서울 내 작은 도시로 불릴 만큼 이용객이 많다. 이에 따라 서관, 동관에 이어 신관 건물이 작년 여름에 신축됐다.

병원 법당도 개신교,가톨릭 등 이웃 종교봉사실과 함께 서관 3층 수술실 옆에 새로 자리를 지정받아 1월에 이전 불사를 거행했다. 약 한 달여간의 내부공사에 이어 단집, 수미단을 새로 조성한 후 10여 년 넘게 등관 6층에서 환우들을 보살펴 주신 부처님을 옮겨 모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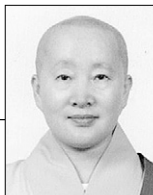
서관 지하1층에서 등관 6층으로, 이제 다시 서관 3층으로 병원의 증축에 맞춰 법당의 부처님도 3번이나 모시고 다녀서 송구할 따름이다. 그래도 지난 1년 여간 여러 환우들과 병원 법우님들의 심시일반 덕택에 처음으로 단장을 사끼지 할 수 있어 부처님께 면목이 선다.

혹자는 묻는다. 중생을 향한 자비심

과 보살행으로 지난 18년 동안 한결 같이 병원 법당에서 환우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니고, 지난 세월을 버티게 한 힘이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고, 은혜를 갚는 사람은 능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아홉 살 어린 나이에 절에 들어와 어른 스님들께 배운 대로 내 생명을 있게 한 일체중생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갚고자 걸어가는 길일뿐이다. 내가 왜 생기고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원으로서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갚고자 걸어갈 뿐이다. 종향병원 안 수술실 옆의 공기 탁한 법당이라도 나를 있게 한 부처님과 중생에 대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소중한 도량 안에서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수행자일 뿐이다.



지홍스님
서울 아산병원 불교법당 지도법사

社說

조계종과 '불통'인 정부

'자연공원법'과 '전통사찰보존법' 등이 규정하는 규제들이 사람의 자유로운 신행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때문에 조계종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축물의 증개축을 포함한 각종 불사와 수행환경 개선 등을 용이하게 하는 법개정을 요구해 왔다. 현 정부는 가급적이면 규제를 풀어 민생을 이이되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각종 규제완화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국립공원을 포함한 공원지역에 포함된 사찰과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 보는 시각은 다르다. 재산권 행사를 돕는 차원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우선시 하는 정책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계종은 공원지역에 포함된 사찰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매우 불편한 규제들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일관되게 정리하여 수행환경과 문화역사의 보존 코드를 함께 살려나가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법리적 원칙에 얽매어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가동하지 않는다.

조계종은 다음 달 초에 열리는 교구분사 주지회의에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종단의 자주권 행사를 위해 종도들의 의지를 결집하겠다는 것이다. 조계종과 정부의 관계가 불편해질 조짐인 가운데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5일 청와대가 마련한 종교지도자 오찬에도 불참했다.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 정부가 종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종과도 불통의 황국을 장기화 한다면 이는 분명히 불행이다. 빠른 시일 안에 서로 가뭇을 수 있는 조정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북악산 터널 왜 보고만 있나?

사패산 터널의 악몽이 되살아나는가? 서울시가 은평 뉴타운 등 서북부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북악산과 북악산 구간에 두 개의 터널을 뚫겠다고 밝혔다. 물론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거세다. 그러나 불교계는 조용하다. 두 공사 구간에는 적지 않은 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 대표적인 사찰로는 육원암과 화계사를 들 수 있다.

공사 계획이 발표되고 환경단체들의 반대의견이 속출하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패산과 천성산의 경우를 되돌아보게 된다. 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이 공회회 등의 법적인 절차를 '일명포장' 진행할 때까지도 전혀 말이 없다가 현장에 장비가 동원된 뒤에야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결국 시공사와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시점에 만나게 되고 갈등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공사를 중단시키지도 못했고 세상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이번 서울 도심 구간 터널 공사의 경우도 현재까지는 불교계가 기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불교계의 자체적인 조사 등 움직임도 없고 환경단체들의 반대운동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주목하는 것 같지도 않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점이 있다. 사찰의 수행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할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고 반대할 일은 확실하게 반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統合佛敎儀式大典 出刊

총 2권 2,100페이지
 가격: 전권 200,000원
 크기: 4x6배판(19x26cm)
 본문법회의식대전 / 총 1권: 100,000원

사집구제편	고사편	추천인
1. 입재 불공의식	○ 화엄사식	1. 가정 안택 의식
2. 삼유재 불공의식	○ 삼유제사식	2. 사무설교사 의식
3. 초재 불공의식	○ 지장사식	3. 지동차교사 의식
4. 이재 불공의식	○ 보현사식	4. 선박 교사의식
5. 삼재 불공의식	○ 문수사식	5. 삼재살해사의식
6. 사재 불공의식	○ 미륵사식	6. 태어영가사식
7. 오재 불공의식	○ 보문사식	
8. 육재 불공의식	○ 묘음사식	
9. 칠재 불공의식	○ 관음사식	

문의전화: (055)747-8350, 017-552-7350
 계좌번호: 농협 803-02-752331 예금주: 김묘경
 우체국 612713-02-021600 예금주: 김묘경

빙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는 글

지난 생애에 맺어진 인연법에 의해 잡재의식(말라식, 아뢰야식)에 의한 씨앗을 심었다가, 보복을 겪는 행위를 빙이라 한다.

- 빙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겪는 일들

1. 지금 빙의된 영가가 누구인지를 아는자는 많다. 그러나
2. 조상 누구가 무엇을 요구한다면, 천도재를 하면 빙의에서 벗어나고 말한다.
3. 이러한 말을 들은 관계자들은 순간적으로 믿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다 앞으로 무슨 재앙이 닥쳐온다고 하면 맹목적으로 따르게 된다.
4. 천도재란, 법력을 동반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것이다.

- 아래과 같이 빙의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5. 빙의로 고생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해안으로 원귀들을 만난다.
6. 한 두 영가의 작용은 보통 우물종이라 하지만, 영가들의 집단체(5-6위 이상)로 빙의된 사람의 몸 속에 자리하고 있다.
7. 자리 잡고 있는 영가들의 업을 소멸시키게 되는데, 이때 대단한 기도의 힘 즉, 법력이 작용한다. (한 영가당 3-4일 정도 소요됨)
8. 업이 소멸되면, 영가의 에너지가 쭈욱 빠져서 실신한 사람처럼 되며, 이러한 영가를 해안으로 일일이 확인한다.
9. 진행자의 법력으로 '반야선'을 받아 영가를 태워서 영계로 보낸다. (사약취(지옥, 아귀, 축생, 수라)를 벗어나서 천상계의 28천의 권속이 된다)

※ 지리산 씨래봉 아래 해발 1100고지에서 1992년부터 2007년까지(15년간) 수행하면서 영가의 악업을 녹여주고, 제거하여 주변 반야선을 받아 영계로 보내는 수행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영가는 반드시 반야선에 의해서 영계로 가게된다)

** 바라옵나니 이 공덕 널리 퍼져서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여자이다 **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 3동 1596-11번지 103호
서진포교원 선운 합창
 문의 010-6289-1233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과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